1강 마음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길

1. 마음, 의식 그리고 기억

◇ 기억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은 존재들은 결코 '비어 있음'이나 '없음'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단지 있는 것과 지각되는 것만을 표현할 것이다. 그런데 있는 것과 지각되는 것은 이러저런 사물의 현존이지 결코 어떤 것이든 그것의 부재는 아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만 무엇이 없다는 것이 가능하다. 아마 그는 어떤 대상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대상을 발견한다. 이때 그는 기대를 좌절시키는 것 앞에서 원래의 기억을 상기하게 되고,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자기는 '없음'과 조우했다고 말하게 된다. (…)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 대상의 관념 속에는, 같은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을 때의 관념보다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관념에 더하여, 다른 것에 의해 그 대상이 없어졌다는 표상까지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다.『창조적 진화L'évolution créatrice』

2. 의식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송(H. Bergson, 1859-1941)은 기억이나 기대가 없다면 '없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베르그송은 기억이나 기대를 동일한 차원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3. 기대란 기억이 없다면 전혀 불가능하다.

-창조적 진화, 즉 미래로의 진화를 형이상학적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베르그송으로서는 기대라는 미래적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베르그송의 통찰은 우리의 내면이나 타자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4. 우리의 내면은 기억의 흔적들로 구성된다.

-기억의 중요성은 정치철학적 지평에서 더 부각될 수 있다.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4)의 고고학이나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역사철학은 바로 억압적 기억과 해방적 기억 사이의 투쟁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